비판정신과 각성이 요체다

"김대중 죽이기" 지상논쟁

우리신문 4월3일자(1066호)에 박웅 논설위원의 서평 "김대중 죽이기"(강준만 지음)가 게재된 바 있다.
이 글을 읽은 독자중 고재갑(외대 영문 1)군이 서평에 대한 반박문을 본사로 보내왔다. 고재갑군의 반박문과 박웅 논설위원의 답변서를 함께 게재한다.(편집자)

대학주보는 역사적인 면에서 내용면에서 여타 대학신문에 비해 월등히 앞선 수준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4월3일자로 발행된 대학주보에서 박웅 논설위원의 사평을 보고 나서 약간의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다.

과연 '김대중은 죽었는가?'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그 할말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문형으로 문제제기를 해 놓았지만 이 문제 제기는 오히려 더 아래부분에 있는 "여기서 그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과 더 가깝다.

"결코 김대중은 망령으로서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버젓이 살아 있는것이다."

여기서 '김대중이 죽지 않았다'라는 필자의 주장은 글의 후반부에 언급되는 "이때로 김대중이 죽어서는 안된다."라는 필자의 믿음과, "지역감정이라는 우리시대 최고의 불씨를 해결할 열쇠를 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필자개인의 확신에 일과 혼돈될 수 있는 언급이다.

또한 이 문장들의 전제와 결론을 보겠다.

"그리고 이런 식의 '결정론'은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강교수는 지식인이 타락하는 것도 '언론'때문이며, 정치인이 타락하는 것도 언론의 문제이며 국민이 무지한 것조차 모두 '언론'의 책임이라는 논조에 가깝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언론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도달한다."

물론 결론 부분에서 강준만 교수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필자 전체적으로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부족해서 위와 같은 의문을 제시하게 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흔히 '대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논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김대중 죽이기'라는 이 책 속에는 얼핏보면 강경하며 독설이 섞인 비판만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엉성한 본인의 글이 대학주보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독자의 진지한 표현임을 밝혀고 싶다.

고재갑(외대 영문 1)

책의 목적 빗나간 어눌한 비판

먼저 부족한 글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읽어주신 독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게다가 이렇게 따끔한 이야기에 스스로의 안일한 글쓰기와 책읽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음에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독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짧지만 몇가지 지면상으로 답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대화를 시도해 본다.

우선 전체적으로 독자의 문제제기에는 '성급한 책읽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다르지 않나는 생각해 본다. 서평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이미 일반적인 상식임을 알고 있다.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필자의 생각은 서평의 두가지 측면이 해제(解題)가 아니며, 역시 독서동기 유발을 위한 책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책읽기의 무책임성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주관적 책읽기의 한 방편이었음을 말하고 싶다.

사회의 빛 되긴 부족한 글

계가 책의 체목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해놓고 할 말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책의 제목은 '김대중 죽이기'이다. 이는 '죽이기'가 말하듯이 누군가 김대중 '죽이기'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까 나는 지금 누가 어떻게 김대중을 죽이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강교수는 책을 통해 이제 정말 '김대중은 죽었다'라고 정의한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완전하게, 설령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도 또 그를 죽이기 위해 총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본인은 책의 제목 '김대중 죽이기'에 대한 의문을 그 다음줄에 '그렇다면 과연 김대중은 죽었는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책의 제목은 김대중이 죽었다는 명제에서 출발하는데 그 명제에 대한 개인적인 책읽기의 첫 의문에서 시작한다는 뜻인 것이다. 지면상 이야기를 줄이고 한가지만 사족으로 단다면 강교수의 글이 대안없는 비판의 시각이라는 지난 서평의 글에서 정책적인 논의를 생각하게 된다고 했는데, 강교수의 책이 의도한 바가 '철저한 비판정신과 각성하는 마음 자세'가 대안이라면 이야말로 지식인의 가장 안일한 탁상주의 철학자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데 어떤가. 모든 지식인과 정치인은 각성하라, 왜냐하면 이러저러 하니까라는 글은 더이상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솔직한 나의 생각이다. 좋은 말도 자주 들으면 귀에 가시가 박히는 법이니까. 어쨌거나 좋은 지적에 대한 적의 생각일을 전제로 몇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박웅(논설위원)

지식인과 정치인은 각성하라!

修正主義와 다른 修整主義

사회로 본 영화 1백년 〈5〉 수정주의

영화 1백년 역사속의 수없이 분류된 영화사조는 어찌보면 영화감독이 아닌 평론가의 작품이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관을 갖고 있겠으나 무슨 무슨주의라고 의식하고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영화평론가들이 그들의 분석력과 정리벽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중 "수정주의"는 전적으로 평론가들의 전유물이다.

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수정주의(修正主義)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한계에 봉착해 본질적으로 해결방안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필요성에 발현한 이론을 말한다.

수정주의는 영화를 보는 시각과 평론관을 수정(修正)하여 본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문예사조가 영화를 읽는 도구로서 차용되어 왔지만 '수정주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같다.

즉 수정주의(修正主義)와는 다른 '수정주의(修整主義)'이다.

'절충주의'와 '통합이론'은 영화를 다르게 수정해서 볼 수있는 다른 비평 방법이다.

이중 절충주의는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유행했던 평론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판단이 충분히 다원적이고 융통성이 있거나 경제적이라면 다른 경험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술의 작업에 있어서도 가장 훌륭히 대처할 수 있다'는 폴린카엘 감독의 말에서 극명히 들어나는 명제인데 이는 영화비평의 새 지평을 이룬 절충주의 평론가들의 업적은 이후 일반적인 비평의 작업들로서 일반화되었다.

절충주의는 여러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미학적인 가치평가보다는 비평가 개개인의 이론적 원칙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체계주의자들에게는 '단순한 인상주의'라는 비판이 거세었다. 1970년대 초, 두개의 상호 연관적인 영화이론이 개인적인 감수성을 토대로 한 영화비평에 과학적 엄밀함을 도입하는 시도가 일어났다

학문적 방법을 영화에 대입하여 보는 관점인 '구조주의'와 '기호학'등을 통해 이시대에도 널리 연구되는 학문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영화에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사조라기 보다는 학문에서 따온 언어학, 인류학, 심리학, 철학 등 여러 학문에서 분석어휘의 개발에 힘써 왔다.

기호학은 '영화가 어떻게 기호화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학문이었다.

정보가 기호화 하는 방법은 무엇이 기호화 하고 있는가와 관련을 맺게 된다. 많은 기호학의 이론들이 영화에 있어서는 탐색의 기간중에 있다. 프랑스의 이른바 '크리스찬 메츠'는 기호학을 영화분석의 기술로 학자들에게 가치있는 것이었다. 기호학은 비평가로 하여금 기호가 미학적 맥락안에서 어떻게 예술적인 평가를 내는가 하는 문제는 비평가에게 달린 문제이다. 표현주의 영화는 사실주의 영화보다 기호학적 분류가 용이할 지도 모른다.

기호학이 지닌 결함은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에 있다. 즉 그 용어들의 자체아유(self-parody)에 빠지는 것이다.

기호학과 구조주의의 차이는 강조의 차이이다.

구조주의는 실용적인 비평에 기호학은 아주 추상적인 비평에 주력했다.

메츠가 지적했듯이 기호학은 상이한 영화들에 대한 약호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관심을 둔다. 반면 구조주의는 단일 영화안에서 다양한 약호들이 어떠한 단일구조로 기능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구조주의자와 기호학자들은 '심층구조'의 개념 즉, 영화의 표면구조에 연관된 상징적인 의미의 그물망에 현혹되어 왔으며 또한 오늘까지도 그에 의존한다.

기호학과 구조주의는 영화이론의 변수를 상당히 확장 시켰다. 그들의 다원론적인 접근은 비평계의 보다 높은 유연성, 복잡성 그리고 심도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구조주의와 기호학은 영화를 새롭게 보는데 있어서 단지 분석의 도구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자체는 영화에서의 기호와 약호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단지 다른 모든 이론들처럼 구조주의와 기호학 역시 실행자들의 역량에 좌우되는 것이다. 훌륭한 비평은 그 비평을 산출하는 비평가의 지성, 취향, 열정, 지식, 감수성이지 그가 사용하는 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경기자)

◇ '이중배상'의 광고(미국, 1994)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구별된 의미해석
'절충주의'와 '통합이론'이 수정된 비평법

연극평 누구나 볼 권리가 있는가

극단「오늘」의「마라/사드」

누구나 무엇이든 볼 권리가 있을까?

대학로 구석에 조그만 창고같은 무대를 둘러보았다. '좋은 연극도 대학로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선전구를 애처롭게(?) 휘날리며, 극단 '오늘'의 "마사/사드-유희적 다시읽기(Re/reading)"는 처음 필자가 질문했던 문제에 다시 한 번 눈을 돌리게 만든다.

독일 희곡작가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는 연극적 다양성과 풍부한 실험정신으로 연극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만 한 작품이다.

또한 극단 '오늘'은 그렇게 만만한 극단만은 아닌 것으로 안다. 모두 20대팔에서 30대초중반 연배의 젊은 단원들로 구성된 극단이지만, 모두들 연극경력 10여년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극단 '한강'과 '천지'에서 민족극계의 주목을 받으며 문제작들을 계속 창작해여 올려 왔던 촉망받는 연극인들이다.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원제 : 드 사드 후작의 연출하에 사랑통 정신병원 극단이 공연하는 장 뽈 마라의 추락과 살해) 는 1964년 4월 독일 베를린 실러극장에서 콘라드 스비나르스키의 연출로 세계에 초연됐다. '마라/사드'는 장황한 제목이 시사하듯이, 1793년 7월13일 프랑스 혁명의 과격한 지도자로 주목받던 장 폴 마라가 샤를로프 꼬르데이라는 한 여성에 의해 살해되기까지의 과정을 연극으로 재현하는데, 이를 드 사드(새디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후작이 정신병원 내의 극단을 지도해 공연한다는 결쳑진 형태가 보여진다.

한편 이 작품은 이전까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주로 작품속의 매력있는 두 인물인 혁명가 마라와 새디즘의 원조 사드, 둘 중의 하나의 입장에 맞춰, 양자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부각시켜 해석해 온 것이 중심축을 이뤄왔고, 혹은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정신병원이 공간인 것에 착안, 사이코드라마나 잔혹극적인 스타일로 꾸며왔던 것이다.

이 연기자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몸짓은 우리 모두가 마음 한 구석에 숨겨두고 있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유희적 다시읽기란 연극적 '유희'의 반개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들은 연기자들의 땀방울을 묻힌 얼굴과 함께, 우스개, 가면, 마임 등을 적절히 녹여 넣어 새로운 연극문화 정립에 목적을 두는 것이라고. 우리 시대에 '연극'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갈망이 만개한 『유희적』 다시읽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시대에 '연극'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겐 물론 무엇이든 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란 이미 우리가 어떤 혼란스런 이데올로기의 장안에서 가치판단의 권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삶의 절과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정 민(환경 4)

내가 경험한 LG
② 인턴사원 김기환편

인턴사원이기는 하지만 첫 출근하는 날은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정직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인으로서의 나는 어떤지
어색한 생각만 들었다. 우면동 LG반도체 중앙연구소…
바로 내가 인턴생활을 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U.S 설계실에 배치되었는데
그 곳에 배치된 사람은 인턴사원 13명 중 나 혼자만이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운 얼마되지 않은 나의 어설픈 지식을 갖고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쑥쓰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걱정으로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은 팀 설정님이었다.
인사와 악수 그리고 몇마디 짧은 대화.
그것으로 나의 모든 우려는 말끔히 씻겨 내려갔다.
어렵고 걱정스러워하는 나의 속내를 마치 다 듬여다 보기나 한 것처럼 따뜻하고
격의없이 대해주는 설정님의 모습은 오히려 내가 미안할 같이 늠 정도였다.
이후에 알게된 것이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내가 인턴사원이라서가 아니라
연구소 전체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연구소 사람들의 자유로운 옷차림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출근할때 보면 그들의 옷차림은 오렌지족 뺨칠 정도였다.
폭 배입은 정장이 있는가 하면 무스에 캐주얼을 차려 입은 사람,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 보기 좋은 사람 등등 각양각색의 옷차림은 연구소가 아니라
학교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였다.
그들은 지시와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일이 좋아
정열을 불태우는 뜨거운 젊은이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젊음들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주는 문화가
연구소 전체를 움직여 나갔다.
LG의 반도체연구소- 그곳은 진정 살아있는 조직이었다.

반도체연구소는 오렌지연구소?

김기환 (중앙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4년)
(LG반도체 '95 동계인턴사원)

LG